

통합과 화해의 논리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박재금**

I. 머리말

고전은 과거를 조망함으로써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다듬을 수 있게 한다. 한국의 불교사에서 사상사의 중요한 맥락을 조성한 지점을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는 일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의 비전을 만들고자 하는 바람에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라 시대의 원효(元曉, 617~686)는 그 사상과 삶의 총체성으로 보아 가장 의미있는 인물로 다가온다.

원효는, 신라의 승려로서 뛰어난 불교학자이며 문장가로서 시인으로서 보살로서의 다층적 면모를 지니면서 사상과 삶을 일치시킨 실천가이다. 무엇보다도 그의 위대성은, 그의 삶의 궤적이 보여주고 있듯이 사상과 삶에 대한 실천적 태도에 있다.

원효의 저술은 100여 종 240여 권¹⁾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유실되고

* 이 글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의 독회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朴在鎭,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 중 19부 22권이 현존한다. 그 중 『대승기신론소』는 대승불교의 교리를 집대성한 것으로서 원효의 탁월한 학식과 통찰력에 의해 『대승기신론』을 재창조한 그의 대표적 저술이다.

마명(馬鳴)의 찬술로 전하는 『대승기신론』은 6세기 중반 이후 중국에 등장한 불교 이론서로서 대승불교의 모든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 그러나 원본 즉, 산스크리트본이나 티벳본이 없이 한문본만 있는 까닭에 저자와 역자 및 성립 배경에 대해 이견이 있다. 현존하는 한문본은 2종이 있는데 ‘마명 지음, 진제 역(구역)’과 ‘마명 지음, 실차난타 역(신역)’이다. 이에 대해 인도찬술설과 중국찬술설이 대립되고 있는데, 인도찬술설의 경우에도 중국불교의 손질이 가해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서 중국불교적 성격이 농후한 저술임에 틀림없다. 극동아시아 불교권에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는 이 논서는 중국불교의 화엄교학 및 선의 형성과 전개에 깊이 관여하였으며 천태, 정토, 진언 등에도 영향을 끼침으로써 북방 대승불교의 이론적 준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불교학 분야의 기본 도서로서 자리매김 된다.

원효가 이 『대승기신론』에 대해 8부 14권의 주석서를 낸 것은, 이를 중요한 문헌으로 간주하여 학문적 열의가 각별했음을 의미한다. 이 중 현존하는 『대승기신론소』와 『대승기신론별기』는 높이 평가받는 주석서로서 특히 『대승기신론소』는 그의 『화엄경소』와 함께 ‘해동소’라고 일컬어진다.

신라의 원효는 후학들에 의해 끊임없는 연구의 대상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현재 그에 대한 연구 논문은 700여 편, 단행본은 50여 권에 이른다. 그러나 연구할 측면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며 그 넓이와 깊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본 독회팀은 출발하였다. 자료로서는 『대승기신론소기회본』²⁾을 취하였는데, 이

1) 혹은 87종 180여 권으로 보기도 한다.

회본은 마명의 『대승기신론』과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및 『대승기신론 별기』를 모아놓은 것으로서 편집자는 미상이다.

II. 『대승기신론소』의 체제와 일심이문

1. 『대승기신론소』의 체제와 내용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는 마명의 『대승기신론』에 대해, 용어와 구절 하나하나마다 자세한 설명을 붙이고 경론의 근거를 들었으며 전체적 문맥의 의미를 탐구하여 그 바른 뜻을 드러내 보였다.

원효의 소가 본문으로 삼은 『대승기신론』은 인연분, 입의분, 해석분, 수행신심분, 권수이익분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연분은 이 논을 지은 이유를 여덟 가지로 말하였는데, 그 첫째가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여의고 궁극적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입의분은 바른 뜻을 세워 이 논을 핵심을 알게 한 것으로서 이 논을 대의인 일심(一心), 이문(二門), 삼대(三大: 體大, 相大, 用大)를 제시하였다. 해석분은 앞에서 세운 핵심을 널리 설명한 것으로서 앞에서 제시한 일심과 이문을 구체적으로 논술하였는데 ‘바른 뜻을 드러내 보임 [顯示正義]’, ‘잘못된 집착을 다스림[對治邪執]’, ‘도에 발심하여 나아가는 모양을 분별함[分別發趣道相]’의 세 부분이 있다. 이는 논을 중심으로 되는 내용이다.

수행신심분에서는 근기가 약한 사람을 위한 수행으로서 사신(四信), 오행(五行), 타력염불(他力念佛)을 설하였다. 이에 대한 원효의 해석은, 믿음을 일으켰으면 반드시 나아가 닦아야 할 것이니 알기만 하고 실행

2) 동국대학교 한국불교전서 편찬위원회, 『한국불교전서』 제1책, 1979.

함이 없으면 논 의 의도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권수이익분에서는 이 논을 믿고 수행하면 얻게 되는 이로움을 말하였다. 이에 대한 원효의 해석은, 선근이 약한 사람은 즐겨 수행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됨을 들어서 반드시 닦을 것을 권하는 것이라 하였다.

위 『대승기신론』의 체제에다, 원효는 종체를 드러내어 설하고 제명을 해석하여 앞부분에 실음으로써 이 논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대승기신론』에 대한 중국, 한국, 일본 학자들의 주석서, 해설서, 기타 연구 논문은 오늘날까지 수백 편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는 수나라의 혜원(慧遠, 523~592), 당나라의 법장(法藏, 643~712)의 것과 더불어 ‘삼대소(三大疏)’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당나라 승려인 법장의 『대승기신론의기』는 그 영향력이 크지만 이것은 사실상 원효의 것을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시대에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는데 원효와 견등(見登) 외에도 경흥(景興), 태현(太賢) 등이 있으며 조선 시대에는 유일(有一)과 의침(義沾)이 있다.

원효가 『대승기신론』을 해석함에 있어, 먼저 핵심이 되는 근본사상인 종체(宗體)를 밝힌 부분에서 대승의 체의 오묘함을 풀이하여 말하기를,

“대승의 체는 깊고 깊으며 고요하고 또 고요하여,……크다고 말하자니 안이 없는 것에 들어가도 남김이 없고, 작다고 말하자니 밖이 없는 것을 감싸고도 남음이 있다.……무엇이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 억지로 ‘대승’이라 이름하였다.”³⁾

고 하였다. 또한 여러 경전의 핵심을 하나로 꿰뚫은 것은 오직 『대승기신론』뿐이며, 이 논문은 무량무변한 뜻으로 종지를 삼고 일심이문(一

3) 원효, 『대승기신론소』 권1, ‘標宗體’.

心二門)의 법으로 요체를 삼고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논을 저술한 목적으로는, 배우는 자로 하여금 삼장의 깊은 뜻을 두루 탐구하게 하고 도를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경계를 길이 쉬어서 마침내 일심(一心)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 논의를 의취가 심원하여 종래에 주석한 사람들 중에 그 종지를 갖춘 사람이 적으니 이는 각자 익힌 바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논이 의거하여 찬술한 경본을 끌어다 해당시켰다고 하였다. 논에 대한 원효의 치밀하고 성실한 해석은, 교파적 한계를 초월하여 논의 심원한 의취를 밝히고자 한 그의 찬술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원효의 찬술 의도에 의해, 대승승의 경전을 망라한 방대한 문헌을 섭렵한 학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들을 끌어서 논리를 전개한 탁월한 해석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원효가 인용한 경, 논 등의 문헌은 모두 140개가 된다.⁴⁾

2. 일심이문(一心二門)

논의 요체인 일심이문은 원효의 사유체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 중요한 개념이다. 이를 『대승기신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설하였다.

“일심법(一心法)에 의하여 두 가지 문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첫째는 심진여문(心眞如門)이요, 둘째는 심생멸문(心生滅門)이니 이 두 가지 문이 모두 각각 일체의 법을 총괄하고 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이 두 문이 서로 여의찮기 때문이다.”⁵⁾

4) 은정희 역주의 『대승기신론소·별기』(일지사, 1991)는, 충실한 작업 결과 이중 13개만 남기고 모두 찾아내는 성과를 이루었는데 못 찾은 것 중에서 5개는 현존하지 않는 논서라고 한다.

위 글에 대한 원효의 해석은 『능가경』의 근거를 들어서 구체적이며 상세한 논의를 펴고 있다. 그의 주석의 방식을 알기 위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능가경』에서 ‘적멸(寂滅)이라는 것은 일심이라 이름하며, 일심이란 여래장이라 이름한다.’고 말한 것과 같다. 이 논에서 심진여문이라고 한 것은 『능가경』의 ‘적멸이라는 것은 일심이라 이름한다.’를 해석한 것이며 심생멸문이란 『능가경』의 ‘일심이란 여래장을 이름한다.’고 한 것을 해석한 것이다. 왜냐하면 일체법은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오직 일심일 뿐인데 이러한 것을 심진여문이라 이름하기 때문에 ‘적멸이란 일심이라 이름한다.’고 한 것이다.

또 이 일심의 체는 본각(本覺)이지만 무명에 따라서 움직여 생멸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생멸문에는 여래의 본성이 숨어 있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여래장이라 이름한 것이다. 이는 『능가경』에서 말하기를, ‘여래장이란 선과 악의 원인으로서 일체의 취생을 두루 잘 일으켜 만든다. 비유하자면 요술사가 여러 가지 취를 변화시켜 나타내는 것과 같다.’고 한 것과 같다.

염정(染淨)의 모든 법은 그 본성이 둘이 없어 진망(眞妄)의 두 문이 다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이라 이름하며, 이 둘 없는 곳이 모든 법 중의 실체이므로 허공과 같지 않아서 본성이 스스로 신묘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심(心)이라고 이름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둘이 없는데 어떻게 일이 될 수 있는가?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심이라 말하는가? 이러한 도리는 말을 여의고 생각을 끊은 것이니 무엇이라고 지목할지를 몰라서 억지로 이름 붙여 일심이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이 모두 각기 일체법을 총괄한다.’고 한 것은 ‘이 마음이 바로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괄한다.’를 해석한 것이다.

5) 원효, 앞의 책, 「논의 체를 정립함(正立論體)」 중에서 ‘해석분’.

위에서는 바로 ‘마음이 일체법을 포괄함’을 밝혔으나 이제 여기서는 ‘두 문이 모두 각기 총괄함’을 나타내었다. ‘이 두 문이 서로 여의찮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은 두 문이 각기 총괄하는 뜻을 해석한 것이니 이는 진여문은 염정의 통상(通相)으로서 염정의 모든 법을 총섭할 수 있으며 생멸문은 각기 염정을 나타내어 염정의 법이 모두 포함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또한 일체의 모든 법을 총섭함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통상과 별상이 다르긴 하나 다같이 부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두 문이 서로 여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위에서 요약한 원효의 해석은, 일심과 이문에 대하여 『능가경』의 구절을 인용하여 근거로 삼으면서 분석적이며 조직적으로 해석을 가하고 있다. 일심은 적멸이며 또한 여래장인데 이 중 적멸은 심진여문에, 여래장은 심생멸문에 각각 해당시켜 이문을 풀이하였다. 이어서 일심의 체는 본각이지만 무명에 의해 생멸을 일으키는 것이라 하여 일심이 이문으로 구별됨을 설명하였다. ‘일심’이라는 용어의 풀이를 하고서 이러한 언어적 표현의 한계성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언어적 표현과 함께 그 한계성에 대한 인식을 도처에서 환기시킴으로써 참된 이치는 말을 떠나 있는 것이므로 언어에 집착하여 실체화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일심이 포괄하고 있는 두 문인 진여문과 생멸문은 각각 일체를 총괄하고 있으면서 서로 화합되고 있다. 대립적 두 문이 대립된 성질을 가지면서도 또한 대립을 떠나 서로 융통하여 화합되는 것이므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것[非一非異]이다. 또한 이 두 문은 일심으로 포용됨으로써 불이(不二)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대승기신론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일관된 구조로서 동시에 원효 사상의 틀을 이루고 있다.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는 단지 주석의 차원이 아니라 이문대립이나

진속차별과 같은 불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시키는 이론을 독창적으로 정립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것이 그의 사고의 기본 틀로서 전반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III. 『대승기신론소』의 사상과 화쟁의 논리

원효의 사상에 관한 논의들은 다양하다. 총화성, 진속원융무애관, 화쟁사상, 화회(화쟁회통)사상, 화업사상, 여래장사상, 일심사상, 일심이문사상, 일심·화회·무애의 사상적 역정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사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원효 사상의 핵심을 여래장 사상에서 구하는 입장을 학계의 전반적인 추세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에 대해 이들을 포괄하는 핵심을 적출하여 통설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⁶⁾

원효의 사상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대승기신론소』는 원효 불교학의 총체로서 이러한 논의들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으며, 원효 사상의 토대나 핵심 원리는 『대승기신론』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승기신론』 사상에 대한 원효의 관점으로는 ‘중관과 유식의 지양, 종합’이나 유식사상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널리 알려지기는 화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총화성이나 진속원융무애, 일심, 일심이문 등이 모두 대립을 극복하는 점에서 화쟁과 통하는 맥락을 그 속에 지니고 있다. 화쟁(和靜)은 모든 논쟁을 화합하는 정신 및 태도이자 논리이다. 교리의 화쟁은 우리나라 불교의 가장 큰 특징으로 간주되는데, 종파에 치우치지

6) 예문동양사상연구원총서1, 한국의 사상가 10인 『원효』, 예문서원, 2002.

않고 전체를 하나의 진리로 귀납시키며 여러 이설들을 모아 회통시킴으로써 통불교적 귀일사상을 이루게 하였다. 화쟁의 연원은 신라의 원광이나 자장에게서도 보이는데 원효에 의해 집대성되었다. 화쟁은 원효의 모든 저서 속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기본적 논리로서 진여와 무명, 부처와 중생, 진과 속을 돌이면서 돌이 아닌 것으로 통합, 화해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되는 논리를 융통, 화합시켜 상위 개념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였는데, 모순과 대립을 한 체계 속에 하나로 묶어 담은 이 구조가 화쟁이다. 이는 부분과 전체를 상호융합시킨 『화엄경』의 “일중일체다중일 일즉일체다즉일(一中一切多中一 一即一切多即一)”의 의미와 통한다.

화쟁의 원리는 세상과 인간의 양면성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그 극복을 지향한다. 대립된 가치가 공존하는 인간세상은 모순적이며 이율배반적이다. 이 모순과 이율배반의 세상 속에서 대립된 것들을 통합하고 화해시킴으로써 인간의 삶을 조화롭게 하여 긍정적인 귀결을 추구한 것이다.

원효가 정립시킨 화쟁은 우리 불교계의 주요한 사상적 흐름을 이루고 있다. 고려의 의천은 교관병수(教觀并修)로써 교와 선을 통합하고자 하였으며, 지눌은 정혜쌍수(定慧雙修)로써 선의 입장에서 교를 통화하려 하였고, 지눌을 이은 혜심은 유불일치를 설하며 유학을 아우르고자 하였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기화(己和)가 유교와 불교와의 화해를 도모하였으며 휴정도 이를 계승하여 선과 교와 염불을 조화시키고자 한 것 등은 바로 이 화쟁의 사상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원효가 후인들에게 드린 영향은 심대하며 따라서 한국사상사에서의 의의 또한 지대하다고 하겠다.

IV. 맺음말

『대승기신론소』를 통해 본 원효의 사상은 한국의 사상사에서 통합과 화해를 지향하는 현대의 사상적 조류에 부합하며 현대에 되살려 발전적 계승을 이루어야 할 정신이다.

원효는 34세에 의상과 함께 당나라의 현장(玄奘, 602~664)에게 유식학을 배우려고 요동에까지 갔다가 첩자로 오인받아 갇혀 있다가 돌아왔다. 45세에 다시 당나라행을 시도하였으나 도중에 마음을 개쳐 돌아와 연구와 교화행을 실천하였다. 중국에는 과계를 단행하고 저자거리에서 표주박을 두드리며 무애가를 부르면서 하화중생(下化衆生)의 보살도를 행하였다. 『삼국유사』 등에 설화로 전해오는 바와 같이 굴레를 벗어난 그의 생애는, 그가 『대승기신론』의 종체라고 말한 바인 ‘세우지 않는 바가 없고[無所不立]’, ‘깨뜨리지 않는 바가 없고[無所不破]’, ‘세우고 깨뜨림에 걸림이 없으며[立破無碍]’, ‘펼치고 합함이 자유로운[開合自在]’ 경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생애는 수행자의 궁극적 모습이며 깨달음에 이른 인간의 경지로서 인간적 삶의 완성도를 제시해 주었다.

학문과 사상과 삶의 하나됨을 이룬 원효에 대한 연구는 불교철학 분야를 중심으로 하면서 문학과 역사 분야뿐만 아니라 제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에 입각하여 조명되고 있다. 원효와 야스퍼스의 사상을 비교 연구하거나,⁷⁾ 원효와 루소의 교육철학을 비교 연구하고⁸⁾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원효의 심성론을 고찰⁹⁾하며, 미학적 관점에서 조명¹⁰⁾하는 등

7) 신옥희, 「원효와 야스퍼스의 인간 이해」, 『신학사상』 18, 한국신학연구소, 1977 ; 「일심과 포괄자-원효와 칼 야스퍼스의 실재관 비교」, 『불교연구』 3, 한국불교연구원, 1987. 7. 등.

8) 정희숙, 『‘각’과 ‘선성’에 대한 교육학적 의미-원효와 루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연구의 지평은 넓어지고 있다. 또한 원효 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탐구하여 오늘날의 우리에게 통일에의 전망을 제시¹¹⁾해주는 것으로 보는 관점도 나타나고 있다.

고전은 긴 세월에 걸쳐 그 가치가 검증되고 수용되어 왔으며 이후로도 새로운 시각으로서 재조명되어 새롭게 태어날 자산이다. 그것은 보편적 진실을 지니고 시공을 넘어 존재하면서 연구자의 관심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
- 9) 이부영, 「원효의 신화와 진실-분석심리학적 시론을 위하여」, 『불교연구』 3, 한국불교연구원, 1987. 7; 「'일심'의 분석심리학적 조명-원효의 대승기신론소, 별기를 중심으로」, 『불교연구』 11, 12집, 한국불교연구원, 1995, 11; 김현준, 『원효의 심성론에 관한 분석심리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10) 이도흠, 「모더니티의 지양으로서 원효 화쟁의 미학」, 『한민족문화연구』 4권, 한민족문화학회, 1999.
- 11) 고영섭, 「원효의 통일학-부정과 긍정의 화쟁법」, 『삼국통일과 한국통일』, 김용옥 편, 통나무, 1995.